



INCHEON UNITED
SPONSOR

Premier Sponsor



Official Kit Sponsor



Official Sponsor



Official Partner



제7호 THE UNITED / 발행일 2025년 08월 16일 / 등록번호 영등포구00591

배포처 인천유나이티드 - 인천시 중구 참외전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3층 / 전화 032-880-5500 / 홈페이지 www.incheonutd.com

기사 인천유나이티드 UTD기자단 / 디자인-인쇄소발행소 (주)다스포츠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한국유희팩커드빌딩 19층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할 수 없습니다.

THE UNITED

OFFICIAL MAGAZINE

2025.08.16 / 제7호

MATCH PREVIEW

성남 홈으로 불러들여 복수 나선다
충남아산 꺾고 1위 사수한다
김포와의 세 번째 맞대결에서 완승 겨냥한다

BLUEMAN INTERVIEW

‘행복 축구’ 김영순 “반드시 승격해서
K리그에서 다시 경쟁하고 싶다”

UTD REPORT

무더위만큼 화끈했던 인천,
UTD기자단 Pick 역대 여름 명경기

ROOKIE INTERVIEW

‘기다림 끝의 도약’ 임형진,
“더 노력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INCHEON UNITED 2025 SQUAD



윤정환 감독
HEAD COACH



이호 수석코치
COACH



아벨 코치
COACH



정혁 코치
COACH



권찬수 GK코치
GK COACH



김용신 전력분석코치
PERFORMANCE COACH



정문호 피지컬코치
PHYSICAL COACH



김정훈 수석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피민혁 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최재혁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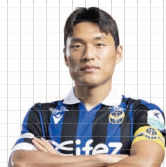
김진영 통역
INTERPRE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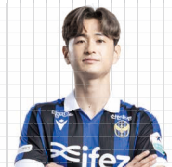
오승기 통역
INTERPRE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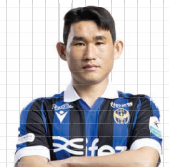
조용희 장비담당관
KIT MANA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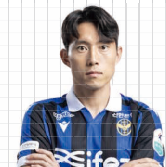
5 이명주
MIDFIELDER



6 문지환
MIDFIELDER



7 김도혁
MIDFIEL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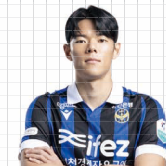
8 신진호
MIDFIEL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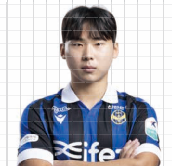
9 무고사
FOR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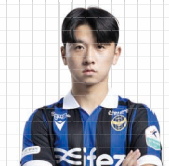
10 이동률
FOR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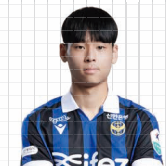
15 임형진
DEFE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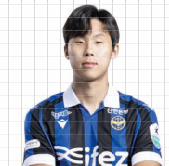
16 이가람
MIDFIELDER



17 김성민
FOR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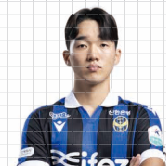
18 백민규
FOR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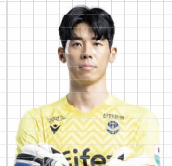
19 김민석
FOR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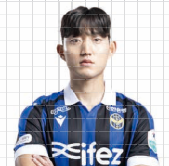
20 멜브리지
DEFE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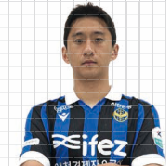
24 강도욱
MIDFIEL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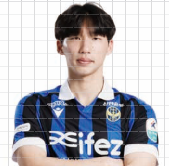
25 이범수
GOAL KEE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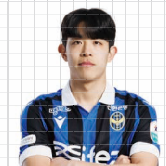
27 김보섭
FOR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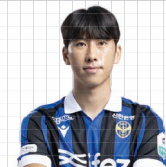
28 김건웅
MIDFIEL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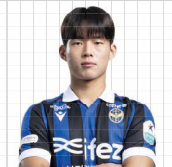
29 강민성
FORWARD



30 서동한
FORWARD



39 김명순
DEFENDER



77 박승호
FOR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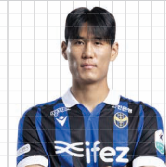
88 정원진
MIDFIELDER



94 쇼타
FORWARD



97 김동현
GOAL KEEPER



99 박호민
FORWARD



1 민성준
GOAL KEEPER



3 이상기
DEFENDER



4 김건희
DEFENDER



11 제르소
FORWARD



13 최승구
DEFE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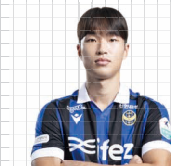
14 바로우
FORWARD



21 황성민
GOAL KEEPER



22 성힘찬
FORWARD



23 박경섭
DEFENDER



31 이상현
GOAL KEEPER



32 이주용
DEFENDER



33 김현서
MIDFIELDER

2025 SCHEDULE

1R	02월 22일 (토) 14:00	2	인천 : 경남	0	인천축구전용
2R	03월 01일 (토) 14:00	2	인천 : 수원	0	인천축구전용
3R	03월 09일 (일) 16:30	2	성남 : 인천	1	탄천종합
4R	03월 15일 (토) 14:00	1	인천 : 서울E	0	인천축구전용
코패	03월 23일 (일) 14:00	3	인천 : 춘천시민	0	인천축구전용
5R	03월 29일 (토) 16:30	1	인천 : 부산	1	인천축구전용
6R	04월 05일 (토) 14:00	0	화성 : 인천	1	화성종합
7R	04월 13일 (일) 14:00	2	인천 : 충북청주	1	인천축구전용
코패	04월 16일 (수) 19:00	2	인천 : 평창	1	인천축구전용
8R	04월 19일 (토) 14:00	3	인천 : 천안	0	인천축구전용
9R	04월 26일 (토) 16:30	1	부천 : 인천	3	부천종합
10R	05월 04일 (일) 16:30	3	인천 : 김포	0	인천축구전용
11R	05월 10일 (토) 19:00	0	충남아산 : 인천	3	아산이수신
코패	05월 14일 (수) 19:00	3	울산 : 인천	0	울산문수
12R	05월 18일 (일) 16:30	0	안산 : 인천	2	안산와~
13R	05월 25일 (일) 16:30	2	인천 : 전남	0	인천축구전용
14R	06월 01일 (일) 19:00	3	천안 : 인천	3	천안종합
15R	06월 08일 (일) 19:00	1	인천 : 부천	0	인천축구전용
16R	06월 15일 (일) 19:00	1	수원 : 인천	2	수원월드컵
17R	06월 21일 (토) 19:00	2	인천 : 화성	0	인천축구전용
18R	06월 29일 (일) 19:00	1	김포 : 인천	1	김포솔더
19R	07월 05일 (토) 19:00	2	전남 : 인천	1	광양축구전용
20R	07월 13일 (일) 19:00	2	인천 : 충남아산	1	인천축구전용
21R	07월 20일 (일) 19:00	0	경남 : 인천	2	창원축구센터
22R	07월 27일 (일) 19:00	4	인천 : 안산	2	인천축구전용
23R	08월 02일 (토) 19:00	0	서울E : 인천	0	목동종합
24R	08월 09일 (토) 19:00	0	부산 : 인천	2	구덕운동장
25R	08월 16일 (토) 20:00		인천 : 성남		인천축구전용
26R	08월 24일 (일) 19:00		충북청주 : 인천		청주종합
27R	08월 30일 (토) 19:00		인천 : 충남아산		인천축구전용
28R	09월 07일 (일) 19:00		부천 : 인천		부천종합
29R	09월 13일 (토) 19:00		천안 : 인천		천안종합
30R	09월 20일 (토) 19:00		인천 : 김포		인천축구전용
31R	09월 28일 (일) 19:00		서울E : 인천		목동종합
32R	10월 04일 (토) 16:30		화성 : 인천		화성종합
33R	10월 08일 (수) 14:00		인천 : 수원		인천축구전용
34R	10월 12일 (일) 16:30		성남 : 인천		탄천종합
35R	10월 19일 (일) 14:00		안산 : 인천		안산와~
36R	10월 26일 (일) 14:00		인천 : 경남		인천축구전용
37R	11월 02일 (일) 14:00		인천 : 부산		인천축구전용
38R	11월 08일 (토) 14:00		전남 : 인천		광양축구전용
39R	11월 23일 (일) 14:00		인천 : 충북청주		인천축구전용

- 상기 경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코미어권 일정은 추후 발표 될 예정입니다.
- 변경된 경기 일정과 경기 관련 소식은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vs SEONGNAM PREVIEW

‘다시 상승궤도’ 인천, 성남 홈으로 불려들여 복수 나선다

글 = 한휘연 UTD기자(by_xayah@naver.com)

잠깐 숨을 골랐던 원정 2연전 이후 다시 5경기 연속 무패, 상승세에 오른 인천이 나이트가 홈으로 돌아와 승격을 향한 박차를 가한다. 상대는 첫 패배의 쓰라림을 안겨준 성남FC다.

인천은 오는 8월 16일 오후 8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성남을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2 2025’ 25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다이렉트 승격’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윤정환 감독을 선임하며 결의를 다졌던 인천은 3라운드 성남과의 시즌 첫 원정경기에서 1-2로 패배했다. 제르소의 시즌 첫 골로 만들어낸 우위를 지키지 못하고 실점했다. 마지막 실점은 후반 추가시간 4분, 경기 종료 1분 전에 나왔다. 당시 윤정환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 “집중력 부족으로 실수 만들었다, 다음에는 이런 상황만 들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때의 각오를 보여줘야 한다.

인천은 여전히 경기 당 점유율(56.4%)과 득점(1.9) 부분에서 각각 리그 1, 2위를 달리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경기 당 슈팅 부분이다. 인천은 경기 당 약 10.8회의 슈팅으로 리그 10위에 머물러 있다.

물론 슈팅이 많다고 득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직전 경기인 24라운드 부산아이파크 원정서는 슈팅 4개로 2득점에 성공하며 승점 3점을 가져오는 ‘효율적인 공격’을 했다. 그러나 인천은 무고사-제르소-바로우라는 특급 공격수 3명을 포함해, 최근 출전한 4경기에서 3득점한 신진호와, 직전 성남전에서도 좋은 호흡을 보여준 박승호-김보섭까지 좋은 공격 자원이 많

다. 효율적인 득점도 좋지만, 공격진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상대 수비진을 공략,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인 성남은 7승 10무 7패(승점 31)로 8위에 올라 있다. 시즌 초의 기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조금은 처졌지만, 최근 5경기 2승 3무로 플레이오프 진출권 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남의 반등은 여름 시즌 영입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프레이타스-레안드로 외인 공격수를 보강했고, 베테랑 골키퍼 양한빈과 연령별 대표 출신 박상혁을 통해 전력을 보강했다. 필드 위 전반적인 전력이 확실히 올라갔고, 특히 새 공격진의 활발한 움직임이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만큼 인천 수비진의 주의가 필요하다.

올 시즌 홈에서 열린 모든 경기에서 지지 않은 인천이 첫 패배를 안겼던 성남을 상대로도 이 기록을 연장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상승궤도에 올라타 승격을 위한 발걸음을 차근차근 내딛고 있는 인천이 경기장을 찾아준 홈 팬들에게 또다시 승점 3점을 선사하기 위해 나선다.



vs CHUNGNAM ASAN PREVIEW

‘멈추지 않는’ 인천, 충남아산 뛰고 1위 사수한다

글 = 한휘연 UTD기자(by_xayah@naver.com)

여름의 끝자락, 무더위에서도 다시 상승궤도에 오른 인천이 나이트가 올 시즌 상대전적 2승 0패로 앞선 충남아산과의 마지막 맞대결에서 뼈를 박으려 한다. 인천은 오는 8월 30일 오후 7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충남아산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2 2025’ 27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핵심 자원들의 부상부터 더위로 인한 경기 시작 시각 지연까지, 선수들의 체력을 갈아먹는 이유가 쌓여가는 와중에도 인천은 연패 없이 시즌의 절반을 보냈다. 올 시즌 단 하나의 목표, 다이렉트 승격을 위해서는 이 경기 승리로 마지막 3라운드 로빈을 기본 좋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

시즌 중반 무더위라는 날씨와 부상 악재 속에서도 윤정환 감독의 용병술이 인천의 1위 자리 수성을 이끌었다. 인천은 문지환-이동률-박경섭이라는 핵심 자원이 탈에도 김건웅-정원진을 영입했고, 김동현의 복귀로 수문장 자리에 무게감을 보탰다. 윤 감독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무고사-박호민-신진호를 번갈아 기용하며 답답한 공격을 풀어내려고 했고, 실제로 공격 자리의 교체가 승리로 이어지는 경기도 많았다.

윤 감독의 전술에 맞춰 묵묵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젊은 선수들도 칭찬해야 한다. 시즌 전 경기 선발 출전하며 센터백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건희부터,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한 최승규와 공격 수비를 오가는 김성민, 후반 교체 투입으로 공격에 활력을 보태는 김민석까지. 인천의 1위 수성에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뒷받침되는 것은 고무적이다.

직전 맞대결서 인천은 충남아산을 홈으로 불려들여 3-0으로 승리했던 시즌 첫 맞대결의 기억을 이어가려 했다. 그러나 전반이 1-1로 종료되고, 후반도 치열한 공방전 속에 무승부로 끝나는 듯싶었으나 천금 같은 PK로 2-1 승리를 가져왔다. 리그가 진행되며 인천 전술에 대한 분석과 대비가 철저해지고 있다. 충남아산 상대 2연승이 3연승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충남아산은 최근 시원한 승리를 맛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중위권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직전 맞대결의 모습처럼 어떤 팀을 상대로도 쉽사리 지지 않는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사의를 표명했다 돌아온 배성재 감독이 팀의 분위기 반전을 위해 더 철저한 준비를 해왔을 가능성이 크다.

주로 4-5-1 포메이션으로 나와 중원에서 쉽게 상대에게 공격을 허용하지 않고, 김종민이 적대적소에서 한방으로 경기를 가져가는 충남아산이다. 인천은 늘 그랬듯 압도적인 점유율로 충남아산에게 쉽게 공을 내어주지 않아야 한다.

지난 맞대결 이후로 새로 영입한 공격수 은고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188cm의 장신 공격수 은고이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득점을 노리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어느덧 3라운드 로빈의 시작을 앞둔 리그, 인천은 4월부터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으며 다이렉트 승격을 향한 전진을 계속해 왔다. 7월까지 홈에서 열린 모든 경기에서 지지 않으며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즐거운 귀갓길을 선물한 것은 덤이다. 다시 우리의 자리로, 목표가 몇 걸음 남지 않은 지금, 인천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



vs GIMPO PREVIEW

꾸준히 지켜낼 '1위의 품격', 김포와의 세 번째 맞대결에서 완승 겨냥한다

글 = 지문호 UTD기자(jimh2001102@naver.com)

어린이날 맞이 시원한 승리, 6월 말 원정에서의 아픔. 희비의 기억을 모두 가진 김포를 다시 한 번 홈으로 불러들인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오는 9월 20일 토요일 오후 7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김포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2 2025' 30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인천은 지난 5월 4일 김포를 홈으로 불러들여 첫 맞대결을 펼쳤다. 박경섭의 프로 데뷔골, 무고사의 PK골과 김민석의 리그 첫 골이 터지며 3-0 완승을 거뒀다. 두 번째 맞대결은 6월 29일에 김포 솔터축구장에서 치러졌고, 1-1 무승부를 거뒀다. 당시 인천은 경기 내내 김포의 거친 압박에 고전하며 0-1로 끌려가던 중, 경기 종료 직전 문지환의 천금 같은 동점골로 무승부를 이뤄냈었다. 인천은 이 두 차례의 맞대결에서 골문에서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한 실점 하나를 제외하면 실점이 없다.

인천은 걱정했던 것보다 여름을 비교적 무탈하게 보내고 있다. 지난 전남 원정 패배 후 무패 행진을 다시 시작했다. 특히 가장 고비일 것으로 예상했던 23라운드와 2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모두 승점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이랜드 원정에서 총 슈팅 수 1개에 그치며 시즌 첫 무득점 경기를 기록했으나, 윤정환 감독과 코치진의 재빠른 전략 수정으로 부산 원정에서는 클린시트 승리를 거뒀다. 특히 김동현이 '국가대표 수문장'의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며 인천의 골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김포는 24라운드 종료 기준 승점 33점으로 7위에 머물러있다. 5위 서울이

랜드(34점)와 6위 부산아이파크(34점)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여전히 승강 플레이오프가 가시권인 만큼,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또한 김포는 인천에 이어 성남과 함께 21실점으로 최소실점 2위이다. 클린시트는 인천(14회)에 이은 단독 2위(12회)이다. 수비 시에 거세게 밀어붙이며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다. 한편 이 영향으로 김포는 공격력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다. 24라운드 종료 기준 27득점으로 인천의 46골에 비해 득점 수가 적다.

38라운드 광양 원정을 제외, 인천은 잔여 경기 전부 충청권 이내에서만 치른다. 체력 면에서 큰 이점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윤정환 감독의 뛰어난 용병술로 부상 공백을 최소화하는 중이다. 무더위가 지나가고 선선한 날씨가 돌아오면, 인천의 창과 방패가 1라운드 로빈 때와 같은 막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인천은 늘 해오던 것처럼 평정심을 잃지 않고 홈에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9월의 유일한 홈경기인 만큼, 인천은 안방에서 팬들에게 시원한 완승을 선물하며 '1위의 품격'을 보여주고자 한다.



'행복 축구' 김명순

반드시 승격해서 K리그1에서 다시 경쟁하고 싶다

글=이환희 UTD기자(hwanhee515@naver.com)



올해 인천에 입단한 김명순은 윤정환 감독 전술 아래, 측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앙으로 들어와 팀의 공격 작업에 가담하는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훌륭하게 이행 중이다. 높은 전술 이해도와 고강도의 체력이 요구되는 어려운 위치지만, 공격과 수비에서 고루 활약하며 팀의 단독 1위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피치 위에서 실력을 뽐내는 것뿐 아니라 뛰어난 친화력으로 구단 다큐멘터리 <피치 위에서>를 통해서도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김명순을 UTD기자단이 만나봤다.



입단 첫해부터 완벽 적응 성공, 친화력 갑 김명순

Q. 입단하며 '인천의 환경이 너무 좋다'는 말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았나?

클럽하우스가 있고, 천연잔디 훈련장이 있다. 거기에 축구전용구장과 열정적인 팬들을 모두 합쳐서 그렇게 느꼈었다. 이런 환경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다.

Q. 구단 다큐멘터리 <피치 위에서> 분량 1순위인데 일부러 카메라를 찾아다니는 건 아닌가?

그건 아니다. PD님들이 먼저 찾아오시는데, 원래부터 카메라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다.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근데 하면 또 즐긴다.

Q. 영상을 보면 굉장히 친화력이 좋아보이는데, MBTI(성격유형검사) 'E(외향형)' 성향이 몇 퍼센트인가?

나는 원래 E가 아니었다. 2년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살다 보니 바뀌더라. 충북청주에서 부주장도 하면서 다가가야 하는 입장이 되면서 바뀌었다. 최근에 검사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은 외향형 90%는 나올 것 같다.

Q. 기존 인천 선수들과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

처음에는 그래도 좀 걸렸다. 1차 동계훈련 끝나고 많이 친해졌다. 처음에는 경섭이, 힘찬이, 상현이 등 입단 동기들과 친했고, 원래 있던 선수들과는 같이 훈련하고 식사하면서 대화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친해졌다. 지금은 건희, 보섭이 형, 성준이 형과 가장 친하다.

Q. 등번호 39번을 선택한 이유는?

처음 프로 입단했을 때 선택지가 37번, 39번, 40번이었다. 신인 선수니까 그냥 39번을 골랐고, 충북청주에서 대학교 때 번호인 6번을 노렸지만 다른 형들에게 밀려서 또 39번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제 평생 39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행복하게 공 차던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윤정환 감독 전술

Q. 시즌 초반에 비해 갈수록 출전 시간이 늘고 주전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체력과 경기력이 경기를 할수록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포백을 쓰다 보니까 수비진 교체가 거의 없다. 좋은 축구를 하고 속도가 빠른 축구를 하다 보니 체력도 올라오고 그에 맞는 팀포가 몸에 배고 있다.

Q. 리그를 절반 이상 돌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수원상성과의 원정경기가 떠오른다. 그때 경기장 분위기와 우리 팬들의 응원이 대단했다. 되게 재미있었고 이런 경기에서 뛸 수 있다는 게 행운이라는 생각을 했다. (홈팀의 응원에 압박감은 없었나?) 전혀 없었고 인천 응원소리가 더 컸다.

Q. 이번 시즌 제르소의 활약이 대단한데, 오른쪽 측면에서 제르소와의 호흡은 어떤가?

제주에 있을 때도 같이 뛴 적이 있었다. 제르소는 그때 왼쪽에서 뛰었고, 나도 왼쪽 측면 수비수를 몇 번씩 썼었는데 그때부터 제르소가 좋아하는 플레이가 뭔지는 알고 있었다. 제르소가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나의 역할이고, 둘이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Q. 윤정환 감독 전술 아래 완벽한 조각처럼 보이는데, 본인은 어떻게 느끼나?

내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든다. 처음에는 적응을 못할 때도 있었지만 감독님 축구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그걸 이해하고 계속하다 보니까 되게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축구를 하면서 이런 기분은 어릴 때 이후로 정말 오랜만이다. 축구를 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느낌이다.



Q. 윤정환 감독과 함께 하면서 능력을 느끼는 때가 있었다면?

그런 때가 많다. 축구에서 전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다. 감독님은 완벽주의자여서 내가 한 가지만 못해도 바로 지적을 해주신다. 그걸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로서는 정말 좋다. 축구선수로서의 나를 바꿔주시는 분이다.

Q. 측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도 들어가는 역할은 겨울부터 준비했나?

아니다. 동계 훈련 때는 제르소가 안으로 들어가고 풀백이 벌리는 위치였는데 성남 원정경기 때 압박으로 둘러싸이다 보니 미드필더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다. 7라운드 충북청주전 교체 출전할 때 수석코치님이 나에게 상대 공격수 뒤에 숨어서 공을 받아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때 지금 역할이 시작됐다. 하지만 지금 쓰고 있는 전술 방향도 생각 중이라고 감독님께서 겨울에도 말씀을 해주셨으니 다 계획 안에 있었던 것 같다.



K리그, 다시 돌아가서 경쟁하고 싶은 무대

Q. 최근 두 시즌 동안 충북청주에서 주전으로 뛰면서 K리그2 경험을 쌓았는데, 인천 선수들에게 해준 조언이 있다면?

초반에 형들이 많이 물어보셨고, 2부리그는 정말 거칠고 쉽지 않다고 대답했었다. 이제 형들도 뛰면서 많이 느끼시는 것 같다. 다들 축구를 잘하니까 이겨내면 된다. (이명주 선수가 몸싸움에서 강하게 붙었던 장면이 기억나는데?) 나도 그걸 보고 '명주 형이 일부러 세게 하려구나' 생각했다. '명주 형이 저렇게 하는데 나도 지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Q. 지난 시즌 공격포인트 10개로 활약이 대단했는데, 올해는 더 성장했다고 생각하나?

솔직히 말하면 더 성장했다고 느끼고 있고 더 좋은 축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격포인트 욕심은 없다. 앞에 무고사, 승호, 바로우, 제르소 같은 골대 앞에서의 능력이 나보다 훨씬 좋은 선수들이 있어서 그 선수들에게 배달을 해주는 역할이다.

Q. 성장한 자신의 경쟁력을 K리그1으로 돌아가서 확인하고 싶은 것 같은데?

1부리그가 많이 그림다. 제주에서는 U-22로 뛴 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지도 않다. 올라가게 되면 나도 내가 어떨지 궁금하다.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지. 1부 선수들과 어떤 경쟁을 하게 될 것인가에 기대감이 있다.

Q. 실력 있는 선수들 덕분에 성장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패스를 어렵게 줘도 받아주고 뺏기지 않으니까 자신감이 생긴다. 확실히 능력 좋은 선수들이 옆에 있으니까 나까지 돋보일 수 있는 것 같다. 지난 안산전 제르소에게 갔던 의도치 않은 패스도 어시스트가 됐고, 충북청주전에 동물이기 완발로 중거리슈팅을 넣었던 골도 내어시스트가 됐다.



내가 어떤 선수인지 인천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Q. 인천팬들이 부르는 응원가 중에 어떤 노래를 좋아하나?

되게 많다. 경남전에 따라 불렀던 '뱃놀이 가자' 좋고, '나의 사랑 인천 FC'도 되게 좋아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가사가 있는 노래도 좋다. 대학교 때부터 유튜브에서 인천 버스 맞이 응원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

Q. 팬들에게 전할 말을 부탁한다.

처음왔을 때 승격은 당연한 목표였고 개인적으로는 나를 모르는 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수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관중들이 매경기 찾아와 주시는 게 진짜 힘이 된다. 너무 힘들어도 응원 소리가 들리면 몇 발 더 뛰게 된다. 승격할 수 있도록 선수단이 많이 노력했েন니까 더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무더위만큼 화끈했던 인천, UTD기자단 Pick 역대 여름 명경기

글 = 손지호 UTD기자 (sonjiho50@gmail.com)

폭염과 폭우가 경기장을 뒤덮는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에도 축구는 멈추지 않는다. 인천유나이티드도 홈, 원정을 가리지 않고 경기장에서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무더위보다 화끈하게, 장대비보다 거세게 몰아쳤다. UTD기자는 여름을 맞아해 상상만 해도 더위를 잊게 만드는 역대 여름 명경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글을 보며 인천과 여름에 함께 만든 추억을 '회상'해 보길 바란다.



2023.08.22 ACL PO vs 하이퐁FC(H) 3-1 승

2022시즌 K리그를 4위로 마친 인천은 전북현대가 FA컵(현 코리아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2003년 창단 이래 처음으로 ACL 티켓을 얻었다. 본선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ACL 플레이오프에서 베트남의 하이퐁을 만났다. 인천은 당시 이 경기 전까지 공식전 5경기 무패 행진(4승 1무)을 달렸고, 7월로 확장하면 리그에서 5승 2무 1패를 거두고 있었다.

객관적인 전력상 인천이 앞섰으나 경기 초반 선제 실점하며 어려운 양상으로 흘러갔다. 천성훈이 골장 동점골을 터트렸으나, 정규 시간 내 결판을 짓지 못했다. 승부는 연장전에서 갈렸다. 에르난데스의 역전골과 제르소의 썸기골로 승리하며 ACL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무더운 여름 더위에 10일간 홈 3연전을 치르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모두의 간절함이 결과로 이어진 하루였다.

UTD기자단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던 그곳으로 가자, 아시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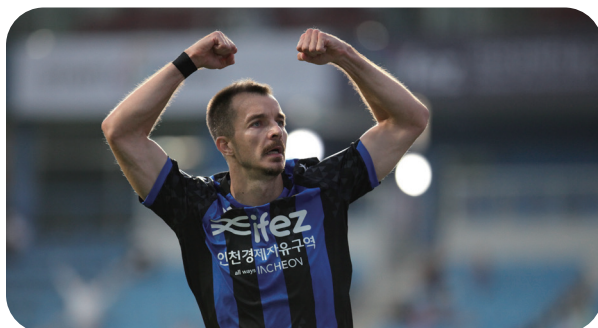
2022.06.22 K리그 17R vs 강원FC(H) 4-1 승

시즌 초반 상승세를 달리던 인천은 5월 들어 리그에서 1승 3무 2패로 침체기에 빠졌다. 직전 제주 원정에서도 패하며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상황에 인천의 주포 무고사가 나섰다. 무고사는 강원전에서 시즌 첫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경기장을 찾은 홈 팬들에게 시원한 득점포로 보답했다.

A매치 기간 몬테네그로 대표팀 일정을 다녀온 무고사가 복귀 직후 제주 원정까지 치러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음에도 당시 K리그 득점 1위의 골 감각은 남달랐다. 무고사는 일주일 사이에 해트트릭을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각각 한 번씩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무고사가 일본 J리그 비셀고베 이적 전 안방에서 터트린 마지막 득점이었던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UTD기자단

“인천의 무고사, 너의 두 팔을 들어줘”



2020.08.16 K리그 16R vs 대구FC(A) 1-0 승

인천은 이날 경기 전까지 5무 10패로 개막 후 15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다. 이에 임완섭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사임하고 임종용 감독대행을 거쳐 조성한 감독이 시즌 중간 부임해 여수선한 상황이었다. 분위기가 반전을 위한 승리가 절실했다. 무고사의 선제골로 앞서간 인천은 이날 대구의 28개 슈팅을 이태희와 수비진들이 육탄 방어하며 리드를 지켜냈다.

이날 인천은 16경기 만에 승전고를 울리며 조성한 감독의 부임 첫 승과 더불어 11위 수원삼성과 승점 차를 6점으로 좁혀 최하위 탈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더위로 정평이 난 대구 원정에서 더위를 잊게 만드는 귀중한 승리였다.

UTD기자단

“1승 위해 포기하지 않은 모두가 챔피언”



2020.07.11 K리그 11R vs 상주상무(H) 1-1 무

매 시즌 힘든 여름이었으나 이 당시 코로나19로 경기 수가 줄어 반등의 기회가 평소보다 적은 상황에 팀 창단 이래 가장 긴 8연패 늪에 빠지며 유독 더 힘든 여름이었다. 연패 탈출이 절실한 경기에서 온갖 악재가 겹쳤다. 전반전 문지환의 부상, 후반전 이문 실점, 이재호와 송시우의 잇따른 퇴장에 수적 열세까지 닥쳤다.

모두가 연패 탈출의 기대를 내려놓은 순간, 지연학의 헌신이 빛났다. 후반 추가시간 지연학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졌다. 간절히 원한 첫 승은 아니었지만 무더위 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천만의 팀 색채가 발휘된 순간이었다.

UTD기자단

“쓰러질지언정 무릎 꿇지 않으리”



2019.07.20 K리그 22R vs 포항스틸러스(A) 2-1 승

유상철 감독 체제에서 2개월째 승리가 없던 인천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 포항 원정을 떠났다. 무고사의 선제골과 일류첸코의 동점골로 팽팽한 상황에 경기 종료 직전 인천의 간절함이 빛을 발휘했다. 유스 출신 신인 이재호가 후반 추가시간 극적인 헤더골을 터트려 경기를 뒤집었다.

무려 8경기만의 승리다. 특히 주전 미드필더들의 줄부상으로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중요했는데 이재호가 프로 데뷔 3경기 만에 데뷔골을 만들어 내

며 강렬한 신고식을 했다. 여름의 묘미 수중전에서 혈투 끝에 따낸 값진 승리였다.

UTD기자단

“위기 속에 피어난 신인”



2018.07.22 K리그 19R vs FC서울(H) 2-1 승

위기의 인천을 구하기 위해 6월 부임한 안데르센 감독의 첫 승 신고가 늦어지던 칠나에 안방에서 난적 서울을 만났다. 10, 11위와 격차를 좁히기 위해 승리가 필요한 경기였다.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폭염 속에서도 구름관중을 이뤄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팬들의 폭염보다 뜨거운 응원이 선수들에게 닿았는지 인천은 안방에서 서울을 잡았다. 이상호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남준재, 문선민의 연속골로 경기를 뒤집었다. 이날 승리로서 인천은 리그 17경기, 무려 135일 만에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의 신호탄을 쏘는 데 성공했다.

UTD기자단

“위기 속 서울전 승리는 늘 반전의 계기”



2012.07.15 K리그 21라운드 vs FC서울(H) 3-2 승

허정무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시즌 중 사임하며 인천이 K리그 승강제 역사의 첫 강등 팀이 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 맞은 서울전. 김진규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가는 듯했으나 한교원의 멀티골과 여름 이적시장서 합류한 싸울로의 결승골로 인천이 우중 혈투 속 극적인 3-2 역전승을 거두게 된다.

인천은 이 경기 이후 제대로 반등에 성공했다. 이후 상승세를 이어 나가 무려 19경기 연속 무패라는 구단 역사의 대기록을 남겼다. 최하위였던 순위를 8위까지 끌어올리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UTD기자단

“봉길매직의 시작”



기다림 끝의 도약 임형진, 더 노력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글 = 이지우 UTD기자(jw2000804@naver.com)



모든 선수에게 프로 무대에서의 성공은 간절한 꿈이다. 하지만, 때로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다. 프로 3년 차에 접어들어 마침내 팬들 앞에 당당하게 선 임형진은 오랜 시간을 인내해야 했지만, 그만큼 더욱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운 선수가 되었다. UTD기자단은 마침내 리그 홈 경기에 출전하여 팀의 승리를 도운 임형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묵묵히 노력하며 꿈을 키웠던 인천에서의 두 시즌

Q. 동국대학교에 재학하던 당시 뛰어난 활약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다. 프로로 넘어올 때 인천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는가?
인천 외에도 다른 팀에서 내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는 있었다. 인천의 경우 한일 대학축구 정기전 덴소컵을 마친 후 연락이 왔는데, 나를 강하게 원하는 느낌을 받았다. 나도 나를 원하는 팀에 가고 싶었고, 대학교 시절 인천 경기도 몇 번 보면서 팀의 매력을 느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인천을 선택했다.

Q. 인천에 온 뒤 첫 프리시즌을 통해 프로 적응 기간을 가졌을 텐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가?
처음에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런데 1차 전지훈련에서 햄스트링을 다쳐서 2주를 빠졌다. 그 뒤 연습경기를 소화할 때도 부상이 이어져서 2차 전지훈련에 따라가지 못했다. 신인 입장에서 능력을 꼭 입증하고 싶었는데, 부상이 겹쳐서 아무 것도 보여주지 못한 점이 힘들었다.

Q. 초반에 부상이 겹쳐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첫 시즌 막판 광주 FC 원정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라운드 베스트 11에도 이름을 올렸는데, 당시 활약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오랫동안 기다린 경기였다. 어린 선수끼리 합을 맞춰서 오히려 마음 편히 준비했던 것 같다. 운 좋게 베스트 11에도 들어갔는데, 그 후에 기회가 오지 않은 점은 속상했다. 하지만 그 역시 감독님의 선택이고,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Q.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힘들 때도 많았을 것 같다. 특히 2년 차에 고민이 많았을 텐데,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대학교에서 프로로 온 입장에서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기회를 받은 것 자체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못 뛰다 보니 마음은 무거웠고, B팀에서 주로 훈련을 했는데 솔직히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아무래도 함께 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지컬 코치님들을 통해 보충 훈련도 받고, 개인적으로 추가 훈련도 소화하면서 몸 상태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Q. 결과적으로 2년 차 시기를 돌아보면, 선수 개인으로는 코리아컵에서 1경기 출전에 그쳤다. 팀도 강등이라는 시련을 겪으면서 아쉬움도 남았을 것 같다. 시즌을 마치고 새해를 앞둔 시점에서 어떤 다짐을 했는가?
1년 차, 2년 차는 분명 아쉬웠다. 그래도 매해 성장해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랐고, 새해에는 꼭 그 목표를 이루고 싶었다. 특히 2년 차를 돌아보면, 그해에 출전한 유일한 경기가 정말 소중한 기회였다. 그런데 그 경기를 치르면서 나 스스로 준비가 많이 안 됐다는 점을 느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 운동을 신날이 거의 없는 한 해를 보냈다.



프로 3년 차를 맞이한 임형진, 조금씩 찾아온 반전의 기회

Q. 우여곡절이 많은 두 시즌을 보냈지만, 윤정환 감독이 부임하면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기회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자신감이 다시 생겼는지 궁금하다.
이번 시즌을 준비하면서 감독님, 코치님이 바뀌었고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스타일의 축구를 경험했다. 비시즌을 보내면서 그 축구 스타일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개인적으로 나는 공을 다루기 좋아하는 성향의 센터백이라고 생각한다. 경기에 나서면 포백에서 좌측 센터백을 맡아 공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내가 잘 이해한다면 그만큼 성장하는 계기가 되겠다고 느꼈다.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발전하고자 노력했다.

Q. 전지훈련 당시 '이주용이 간다' 영상에 출연했는데, 책임감과 압박감을 언급한 대목이 인상적이었다. 마인드 컨트롤을 주로 어떻게 진행했는가?
전지훈련 때 팀에서 1분 스피치를 진행했는데, 그때도 책임감과 압박감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프로 축구선수라는 직업은 한 경기를 잘 치를 때 환호도 받지만, 동시에 부진하면 질책을 받는다. 못한 경기에서는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압박감이 따라온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대학교 시절에도 물론 다른 어려움이 있었지만 프로는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 새로운 면이 있는 무대이다.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 이유이다.

Q. 2025시즌으로 넘어오면서 전보다 빠르게 명단에 합류했고, 화성 FC 원정 경기에 투입되기도 했다. 긴박한 상황에서 교체 투입됐는데 당시를 돌아보자면?
2년 차 때 울산HD 원정 경기도 비슷한 시간에 교체 투입됐다. 교체로 들어가면 템포 적응도 어렵고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울산을 상대할 때는 큰 실수를 범했는데 다음에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런 기억이 있었기에 무사히 경기를 마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Q. 해당 경기 외에도 코리아컵에서 기회를 받았다. 모든 경기가 소중하게 다가왔을 것 같은데, 어떤 심정으로 경기에 임했는가?
감독님이 전부터 코리아컵은 경기에 못 나서던 선수 중심으로 치르겠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선발로 나서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소중한 기회가 온다면 준비한 대로 실력을 보여주자고 생각했다. 그래야 다음 기회도 온다는 각오로 임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리그 올 데뷔전

Q. 코리아컵 일정을 마친 후 다시 기다리는 시간이 찾아왔는데, 갑작스럽게 충남아산FC를 상대로 리그 경기를 소화했다. 출전이 결정됐

을 때의 기분은 어땠는가?
원래 경기 하루 전에는 B팀 선수들이 오전 훈련을 소화하고, A팀 선수는 오후 훈련만 소화한다. 나는 B팀이어서 오전에 운동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 선수가 있어서 퇴근하지 말고 오후 훈련도 참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설명 못 뛰게 되더라도 이 자체가 큰 기회라 생각해서 열심히 임했는데 불운하게도 (박)경섭이가 다치고 말았다. 그러면서 18인 명단 포함은 확정됐지만, 선발 출전 여부는 경기 당일에 알았다. 처음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금방 마음을 다잡았다.

Q. 그전까지 치른 리그 경기는 모두 원정이었고, 홈에서는 처음 경기에 나섰다. 남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원정 경기만 나선 점이 항상 아쉬웠다. 명단에 든 적은 있어도 출전하지 못했는데 꼭 팬들 앞에 나서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다. 리그는 코리야컵과 다른 열기가 있고,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무대였기에 간절히 뛰고 싶었다.

Q. 오랜만에 받은 기회였고, 팀이 승리하면서 경기를 잘 마무리했는데 자신의 활약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체력적인 면을 많이 걱정했다. 하루 전에 오전, 오후 훈련을 모두 소화했고 경기 당일 오전 훈련도 강도가 됐다. 결국 75분이 넘어가면서 다리에 경련이 일어났는데, 그 점이 정말 아쉽다. 그리고 스스로는 긴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경기를 하다 보니 공중 경합이나 위치 선정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런 면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최고의 분위기' 인천에서 더 훌륭한 활약을 펼치고 싶다

Q. 아직 팀에서 입지가 확고하지는 않아도, 분명 점점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남은 시즌을 소화하는 각오가 궁금하다.
팀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에 더 노력해야 한다. 기회가 주어진 때 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최대한 많은 경기에 출전하고 싶고, 팀의 목표는 무조건 우승을 통한 승격 직행이다.

Q. 팀이 1위를 달리고, 부상자들이 발생해도 유니폼을 함께 지참하면서 '원 팀'의 면모를 보였다. 팀 분위기는 어떤가?
3년간 이 팀에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최고이다. 원 팀으로 뭉치기가 쉽지 않은데, 감독님과 코치님을 중심으로 선배 형들이 잘 이끌어 주신 덕분에 잘 흘러가고 있다.

Q.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경기에 나오지 못할 때도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서 큰 힘이 됐다. 정말 감사하다. 아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실망감을 느끼신 적도 있을 것 같다. 반드시 더 노력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인천유나이티드와 함께하는 신포동 개항길 상인회

인천유나이티드 홈경기 관람 후 아래 신포동 개항길 상인회 소속 매장에 방문하여
당월 홈경기 관람 티켓(지류/모바일) 또는 2025시즌 시즌권을 제시하시면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상호명 우다치(우리 모두 다함께 치킨해)
주소 인천 중구 제물량로166번길 1-11
영업시간 17:00~24:00(라스트오더 23:00)
서비스 주류 1병 제공(3만원 이상 구매시)



상호명 BBQ치킨(신포사거리점)
주소 인천 중구 제물량로166번길 1-21
영업시간 15:00~24:00(라스트오더 23:00)
서비스 치즈볼 제공(치킨+주류 구매시)



상호명 진순두부
주소 인천 중구 우현로35번길 24-3
영업시간 09:00~21:00(라스트오더 20:30)
서비스 음료 제공(2만원 이상 구매시)



상호명 신포맥주
주소 인천 중구 제물량로166번길 1-27 2층
영업시간 18:00~01:00
서비스 10% 할인



상호명 맥주창고
주소 인천 중구 우현로35번길 20-1
영업시간 16:00~02:00(라스트오더 01:00)
서비스 튀김튀포 제공(3만원 이상 구매시)



상호명 써브웨이(신포점)
주소 인천 중구 우현로35번길 26 1층
영업시간 08:00~22:00
서비스 쿠키 1개 제공(1만 2천원 이상 구매시)



상호명 신포동 튀김가
주소 인천 중구 제물량로166번길 1-14 1층
영업시간 16:00~22:00
서비스 계란찜or별집점제공 제공(매뉴 주문시)



상호명 상하이 양꼬치
주소 인천 중구 우현로35번길 20-1
영업시간 12:00~24:00
서비스 음료 제공(3만원 이상 구매시)



상호명 명품한우
주소 인천 중구 우현로35번길 19-11층
영업시간 11:00~22:00
서비스 주류 1+1 제공(매뉴 주문시)



상호명 백년불고기문물갈비
주소 인천 중구 우현로39번길 23-1 1층
영업시간 11:30~22:00(라스트오더 21:00)
서비스 음료 제공(매뉴 주문시)



상호명 소풍노래타운
주소 인천 중구 제물량로166번길 1-21
영업시간 18:00~04:00
서비스 30분 추가 제공(1시간 이상 이용시)



상호명 설빙
주소 인천 중구 우현로35번길 26-2 3층
영업시간 12:00~22:00
서비스 1인 1개 과자류 제공(빙수 구매시)



상호명 백년식당 서서갈비
주소 인천 중구 제물량로166번길 1-27
영업시간 11:00~22:00
서비스 음료 제공(매뉴 주문시)



상호명 신포래 타로
주소 인천 중구 우현로35번길 23-1 1층
영업시간 13:00부터(예약 010.9520.5855)
서비스 포춘쿠키 제공(상담시)



상호명 장수삼계탕
주소 인천 중구 개항로10-1 1층(중앙동 4가)
영업시간 09:00~21:00
서비스 1인당 1,000원 할인



상호명 모야모야
주소 인천 중구 우현로35번길 22
영업시간 17:00~24:00
서비스 꼬치 2개 제공(3만원 이상 구매시)



상호명 장모죽발
주소 인천 중구 개항로6(중앙동 4가)
영업시간 15:00~24:00
서비스 막국수 제공(매뉴 주문시)

2025시즌 인천유나이티드 직관의 감동을 계속 느끼고 싶다면?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공식
유튜브·카카오TV·네이버TV
채널을 구독하세요!

인천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IUFC TV

